

골족에 대한 모든 것



**The Celts and the Gauls :
Over 100 Questions and Answers !**

갈리아 족에 대한 모든 것 !

차례

갈리아 족의 생활과 문명

1. 켈트 족을 갈리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	7
2. 왜 세 개의 갈리아 족이라고 부르는 걸까 ?.....	8
3. 갈리아 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	9
4. 오피둠(Oppidum), 오피다(oppida)란 무엇일까?.....	10
5. 무리스 갈리쉬스란 ?.....	11
6. 갈리아 족의 이름은 전부 ix 로 끝날까 ?.....	12
7. 갈리아 족은 족장을 방패 위에 태우고 다녔을까 ?.....	13
8. 갈리아 족은 정말 늘 멧돼지 고기를 먹었을까 ?.....	14
9. 갈리아 족의 주식은 뭐였을까 ?.....	15
10. 그리스인들은 켈트 족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 ?.....	16
11. 켈트 족은 무엇을 마셨을까 ?.....	17
12. 켈트 족에게 드루이드 승이란 어떤 존재였을까 ?.....	18
13. 음유시인의 역할에 대해 알고 있니 ?.....	19
14. 갈리아 족은 왜 글씨를 안 썼을까 ?.....	20
15. 갈리아 족은 전부 똑 같은 옷을 입었을까 ?.....	21
16. 갈리아 족의 신에 대해 알고 있니 ?.....	22
17. 그리스나 로마인들처럼 켈트 족들에게도 신전이 있었을까 ?.....	23
18. 갈리아 족의 연회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	24
19. 갈리아 족은 인간을 제물로 바쳤을까 ?.....	25
20. 갈리아 족은 어떻게 장례를 치렀을까 ?.....	26
21. 갈리아 족이 목에 두른 장신구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	27
22. 갈리아인들은 전부 콧수염을 길렀을까 ?.....	28
23. 갈리아인들은 과연 부자였을까 ?.....	29
24. 갈리아인들의 교역 상대는 누구였을까 ?.....	30
25. 갈리아 족의 드루이드 승은 어떤 복장을 했을까 ?.....	31
26. 드루이드 승의 교육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	32
27. 갈리아 족의 선돌은 누가, 어떻게 다듬었을까 ?.....	33

갈리아 전쟁

- 28. 카르닉스란 ?..... 34
- 29. 갈리아 족들의 무기는 로마의 것과 어떻게 달랐을까 ?..35
- 30. 갈리아 족들의 창과 방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 36
- 31. 갈리아 족 기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37
- 32. « 갈리아 족이 두려워하는 건 오직 한 가지, 하늘이 머리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뿐이다 » 라는 전설의 유래는 ?..... 38
- 33. 갈리아 족의 전쟁 군기는 어떤 모양이었을까 ?.....39
- 34. 갈리아인들은 로마를 점령했을까 ?..... 40
- 35. 갈리아 인들과 로마인들의 죄수들은 어떤 운명을 맞았을까 ?..... 41
- 36. 갈리아인들의 의사소통 방식은 ?.....42
- 37. 로마인들의 전쟁 무기가 갈리아 족보다 우수했을까 ?..43
- 38. 켈트 족은 왜 적들의 머리를 잘랐을까 ?.....44
- 39. 갈리아인들의 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 45
- 40. 툴르즈 지방에 전해오는 « 저주 받은 황금 » 전설이란 ?..... 46
- 41. 비투이투스 (Bituit) 왕이 패배한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47
- 42. 갈리아 전쟁의 갈리아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48
- 43. 로마인들에게 갈리아 인들은 어떤 '원수'였을까 ?..... 49

카이사르와 갈리아 전쟁

- 44. 갈리아 전쟁은 왜 일어난 걸까 ?..... 50
- 45. 카이사르가 로마 원로원의 허가도 없이 갈리아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 51
- 46. 갈리아 전쟁 당시 카이사르가 보유한 군대는 ?.....52
- 47. 갈리아 전쟁과의 전투 당시 카이사르의 역할은 ?..... 53
- 48. 갈리아 전쟁 당시 카이사르 기병대를 구성한 것은 누구였을까 ?..... 54
- 49. 갈리아인들은 전부 카이사르의 적수였을까 ?..... 55

50. 갈리아 인들 중 카이사르의 가장 잔인한 적은 누구였을까 ?.....	56
51. 카이사르의 보조 부대를 구성한 사람은 ?.....	57
52. 이 시대 기병과 보병, 누가 더 힘이 셨을까 ?.....	58
53. 기병의 주요 역할은 무엇이였을까 ?.....	59
54. 갈리아 전쟁 당시 베르생제토릭스의 나이는 ?.....	60
55. 베르생제토릭스가 카이사르에 맞선 저항군의 수장으로 추대된 장소는 ?.....	61
56. 베르생제토릭스는 과연 누구였을까 ?.....	62
57. 베르생제토릭스의 반란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걸까 ?...63	63
58. 아와리쿰 전투의 결말은 ?.....	64
59. 아와리쿰 전투 승리 후 카이사르가 한 일은 ?.....	65
60. 제르고비 전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	66
61. 카이사르의 계획을 방해한 변수는 ?.....	67
62. 카이사르의 지략이 제르고비에서 통했는지 ?.....	68
63. 로마인들이 제르고비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이유는 ?...69	69
64. 카이사르가 제르고비에서 패배한 주요 원인은 ?.....	70
65. 카이사르가 제르고비에서 얻어 간 군사적 결과는 ?.....	71
66. 제르고비의 위치는 ?.....	72
67. 기원전 52년의 전략 지도.....	73
68. 동맹을 맺었던 하이두위 족이 탈퇴하자 카이사르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	74
69. 갈리아 전쟁 당시 카이사르의 기병은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	75
70. 카이사르와 싸운 갈리아 전사 중 가장 훌륭하게 묘사된 인물들은 누구였을까 ?.....	76
71. 가장 중요했던 갈리아 전쟁은 ?.....	77
72. 카이사르에 맞선 베르생제토릭스의 전략은 무엇이였을까 ?.....	78
73. 로마인들에 맞선 베르생제토릭스의 전략은 무엇이였을까 ?.....	79
74. 베르생제토릭스는 왜 카이사르에게 그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 걸까 ?.....	80
75. 베르생제토릭스가 알레시아에 감금된 이유는 ?.....	81
76. 알레시아 주민들은 카이사르에 맞선 저항군이였을까 ?.....	82

77. 알레지아 전투가 지속된 기간은 ?.....	83
78. 알레지아에 카이사르는 스파이를 두었을까 ?.....	84
79. 알레지아 전투 당시 족장 크리토냐토스가 제안한 것은 ?.....	85
80. 구조 군대가 알레지아에서 실패한 이유는 ?.....	86
81. 갈리아 족은 어쩌면 알레지아에서 승리할 수도 있었던 걸까 ?.....	87
82. 로마 군에 맞선 베르생제토릭스의 전략은 성공했을까 ?.....	88
83. 알레지아 전투의 승리는 카이사르에게 갈리아 족에 대한 군사 작전의 종말이라는 의미를 가져왔을까 ?.....	89
84. 갈리아 족의 마지막 전투는 ?.....	90
85. 카이사르가 갈리아 족의 풀기 힘든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	91
86. 유셀로두눔(Uxellodunum) 전투의 결말은 ?.....	92
87. 유셀로두눔(Uxellodunum) 에서 최후의 갈리아 전쟁을 끝내고 카이사르가 한 일은 ?.....	93
88. 베르생제토릭스가 항복하는 모습은 어땠을까 ?.....	94
89. 베르생제토릭스와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 전부터 알던 사이였을까 ?.....	95
90. 베르생제토릭스는 어떻게 죽었을까 ?.....	96
91. 갈리아 전쟁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은 수장은 ?.....	97
92. 갈리아 전쟁 당시 가장 빼어난 활약을 벌인 카이사르의 부관은 ?.....	98
93. 갈리아 전에서 위험해 처했던 카이사르는 어떻게 위기를 모면했을까 ?.....	100
94. 전투 당시 카이사르의 태도는 ?.....	101
95.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을까 ?.....	102
96. 로마 역사에서 중요성을 차지하면서 카이사르의 조카이기도 했던 인물은 누구일까 ?.....	103
97. 갈리아 전쟁 당시 카이사르의 나이는 ?.....	104
98. 갈리아 전쟁의 지속 기간은 ?.....	105
99. 갈리아 전쟁이 끝난 뒤 카이사르는 부자가 되었을까 ?.....	106
100. 카이사르가 갈리아 전기를 쓴 것은 언제, 어디서였을까 ?.....	107

101.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기를 쓰면서 거짓말을 했을까 ?	108
102. 카이사르의 전쟁 참모는 ?	109
103. 카이사르가 알레지아 전투에서 승리한 후 갖춘 병력은 ?	110
104. 켈트 족의 요새를 두고 로마인들이 결정 내린 사항은 ?	111
105. 갈리아 족을 대하는 카이사르의 태도는 ?	112
106. 카이사르는 오랫동안 승리를 누렸을까 ?	113

갈리아 전쟁 이후 켈트 족

107. 켈트 족의 위대한 발명품은 ?	114
108. 빅스(VIX)의 보물이란 ?	115
109. 아그리(agris)의 투구란 ?	116
110. 틴티낙(Tintignac)의 보물이란 ?	117
111. 갈리아 단어를 아는 게 있다면 ?	118
112. 콜리니 달력이란 ?	119
113. 비브락트는 어떤 요새였을까 ?	120
114. 하이두이족과 아르베르느 족의 차이는 ?	121
115. 갈리아 전투 중 비브락트의 역할은 ?	122
116. 카이사르의 승리 후 비브락트는 어떻게 되었을까 ?	123
117. 비브락트는 지금도 볼 수 있을까 ?	124
118. 카이사르는 관대한 인물이었을까 ?	125
119. 갈리아 전쟁이 끝난 후 갈리아 인들은 카이사르 군대에 합병되었을까 ?	126
120. 갈리아 족에 대해 잘 보여주는 사이트는 ?	127
색인	128

Cet ouvrage est publié avec le concours de la région Midi-Pyrénées Languedoc-Roussil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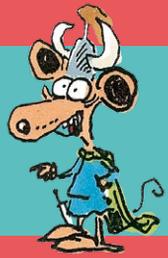
Copyright © 2016, ATHENA Editions

Droits de traduction et de reproduction réservés pour tous pays. Toute reproduction, même partielle, de cet ouvrage est interdite. Une copie ou reproduction par quelque procédé que ce soit, photographie, microfilm, bande magnétique, disque ou autre, constitue une contrefaçon passible des peines prévues par la loi du 11 mars 1957 sur la protection des droits d'auteur.

ISBN 2-913314-12-0

9782913314122

켈트 족을 갈리아라고 부르는 이유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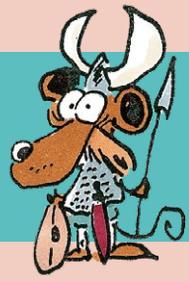


« 우리가 갈리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언어로는 켈트라 불리는 사람들 » 카이사르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썼다. 갈리아라는 명칭은 로마인들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라틴어 « 갈루스 » 에서 비롯된 것이다. 로마 역사가들에게 우리는 수탉의 나라 국민, 다시 말해 « 갈리들 » 인 것이다 ! 몇몇 언어학자들에 따르면 ‘갈Galie’ 은 켈트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일랜드 고어로 « 성난 사람들 » 이라는 뜻으로 켈트 족이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켈트 » 라는 명칭은 기원전 6 세기 역사책에서 처음 쓰이기 시작했다.



오피둠 (Oppidum), 오피다 (oppida) 란 무엇일까?



라틴어 오피둠 (단수), 오피다(복수)는 각 민족이 방어용으로 지은 « 요새 도시 » 를 가리킨다. 오피둠은 가능하다면 강으로 둘러싸인 높은 지대나 두 개의 강이 만나는 지점에 지어졌다.

어떤 오피둠은 수 헥타르를 차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300 헥타르에 달하기도 한다. 부르고뉴 지방 브브레 (Beuvray) 산의 에뒤앙 (Eduens) 이나 비브락트 (Bibracte) 의 면적은 200 헥타르에 달했다.

로마인들이 비브락트를 대신해 건설한 아이구스토두뎀 (Augustodunum) 은 성벽 6 킬로미터 전체 면적 200 헥타르에 달하는 마을이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족이 건설한 오피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거듭 강조했다.





갈리아의 벽이란 무엇일까 ?



켈트인들은 카이사르가 아바리쿰 (Avaricum) 을 묘사할 때 등장한 건축 양식을 발명했다. 카이사르는 이 오피둠이 늪지로 덮여 있어서 이미 선천적으로 방어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방어 기능을 더 높이기 위해 하이두이족은 더 높은 벽을 쌓고 « 갈리아의 벽 » 이라고 불렀다.

성벽은 대들보를 가로로 서로 엇갈려 쌓고 큼직한 못을 박아 골조로 삼은 다음 흙으로 빈틈을 채웠다. 건조한 돌을 외벽에 둘러 두께 4미터, 높이 4미터의 견고한 성벽을 만들었다. 갈리아의 벽은 켈트 족의 기원이 되는 브르타뉴 지방에서부터 바비에르 (Baviere) 지방에 걸쳐 널리 발견되었다.

갈리아 족의 의사 소통 방식은 어땠을까?



비상 사태가 벌어졌을 때 공격 명령이나 전략을 전달할 때 쓰인 건 카르닉스 (carnyx) 였다. 갈리아인들의 우렁찬 노래와 카르닉스 소리에 깊은 인상을 받은 그리스 역사가 폴리베(Polybe)는 기원전 225년 로마인들과 갈리아인들이 맞서 싸운 텔라몬 전투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다.

« 뿔피리와 트럼펫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았다. 이 악기들이 내는 소리에 병력 전원이 질러대는 함성은 인근까지 생생히 번졌으며 흡사 콘서트를 방불케 했다. »

로마인들의 전쟁 무기가 갈리아 족보다 우수했을까 ?

«폴리오세틱 Poliorcétique » 이란 도시 포위 공격술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이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거의 모든 전쟁 도구들을 가져왔다. 어떤 투석기들은 아주 무거운 포환을 날려 쓸 수도 있었다. 노포들은 100미터 떨어진 병사의 몸을 뚫을 수 있을 정도의 쇠조각을 초고속으로 발사할 수 있었다.

이 투석기와 노포들은 유적 발굴 작업 당시 발견된 것이다. 카이사르는 아바리쿰 (Avaricum) 에 외호를 건너기 위해 거대한 진지와 요새를 건설했다. 생 제르맹앙레의 « 국립 고고학 박물관 » 에 가면 아바리쿰 공격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갈리아 족의 마지막 전투는 ?



마지막 전투가 발발한 건 1년 후, 기원전 51년 여름이었다. 유셀로두눔 (Uxellodunum) 공락이 그것으로 이 이름에는 « 무너뜨릴 수 없는 진정한 갈리아의 마을 » 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 두 명의 수장, 록테리오스와 카뒤르크과 알레지아 전투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수많은 남자들이 전투에 참여했다. 카니니우스의 명령을 받은 군대에 쫓겨 갈리아인들은 난공불락의 오피돔으로 피신했다. 다행히 그곳엔 마실 물과 식량이 있었다 !



카이사르가 갈리아 족의 풀기 힘든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

상황을 정비하고 갈리아 인들에게 자신의 힘과 당당함을 보여주기 위해 카이사르가 직접 등장한다. 카이사르가 특히 피하고 싶었던 건 곳곳에서 갈리아 저항군의 모습을 좋은 본보기로 삼는 상황을 맞는 것이었다 !

기원전 51년 여름, 날은 무척 더웠지만 포위 당한 진지에는 요새 발치를 흐르는 물줄기 덕분에 물이 부족하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카이사르는 유셀로두눔 (Uxellodunum) 의 단점을 알아냈다.

물 ! 그는 지체 없이 그보다 아래쪽에 10층짜리 진수대를 쌓도록 명령했다. 거기서 병사들은 갈리아인들을 겨누어 쉴새 없이 활과 포탄을 날릴 것이었다.



유셀로두눔 전투의 결말은 ?



갈리아 인들은 불 붙은 술통을 이용해 진수대를 불태우려 했으나 시시한 교란 작전에 그치고 말았다. 포로들의 눈에 뜨이지 않게 로마 병사들은 물줄기 쪽으로 땅굴을 파 나갔고 머지않아 갈리아인들의 수로를 막을 작전이었다.

물줄기를 빼앗긴 포로들의 항복을 얻어내는 건 시간 문제였다... 유셀로두눔은 무너졌고 카이사르는 포로들의 목숨은 살려주었다. 다만 자신을 향해 무기를 겨누던 갈리아 병사들의 손을 거침 없이 잘라 저항군들에게 본보기를 보였다. 기원전 51년 여름, 갈리아 전투는 이렇게 끝났다.



유셀로두눔에서 갈리아 족과의 마지막 전투를 끝내고 카이사르가 한 일은 ?



원로원이 갈리아에 있던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한 카이사르를 갈리아 영토에서도미티우스로 교체할 것이며 주어진 기간 내에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공공의 적으로 치부될 거라는 칙령을 내렸다.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넌 뒤 원로원의 보수파에 대항하여 내란을 일으킨다. 세자르가 이끄는 로마 군대와 공화정이 이끄는 또 다른 로마 군대간의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 Alea jacta est » 라는 말은 « 주사위는 던져졌다 » 라는 뜻으로 카이사르가 이탈리아와 갈리아주의 경계를 이르는 작은 강 루비콘을 건널 당시 했던 말이다. 이 내란은 기원전 31년까지 20년간, 악티움에서 옥타브가 승리를 거둘 때까지 지속된다.

카이사르의 양자 옥타브는 아우구스트라는 이름으로 로마 제국의 창설자가 된다.



갈리아 전쟁 당시 카이사르의 나이는 ?



카이사르는 기원전 101년이나 100년에 출생했으니 기원전 58년에 42살이었고, 전쟁이 끝났을 때는 49세나 50세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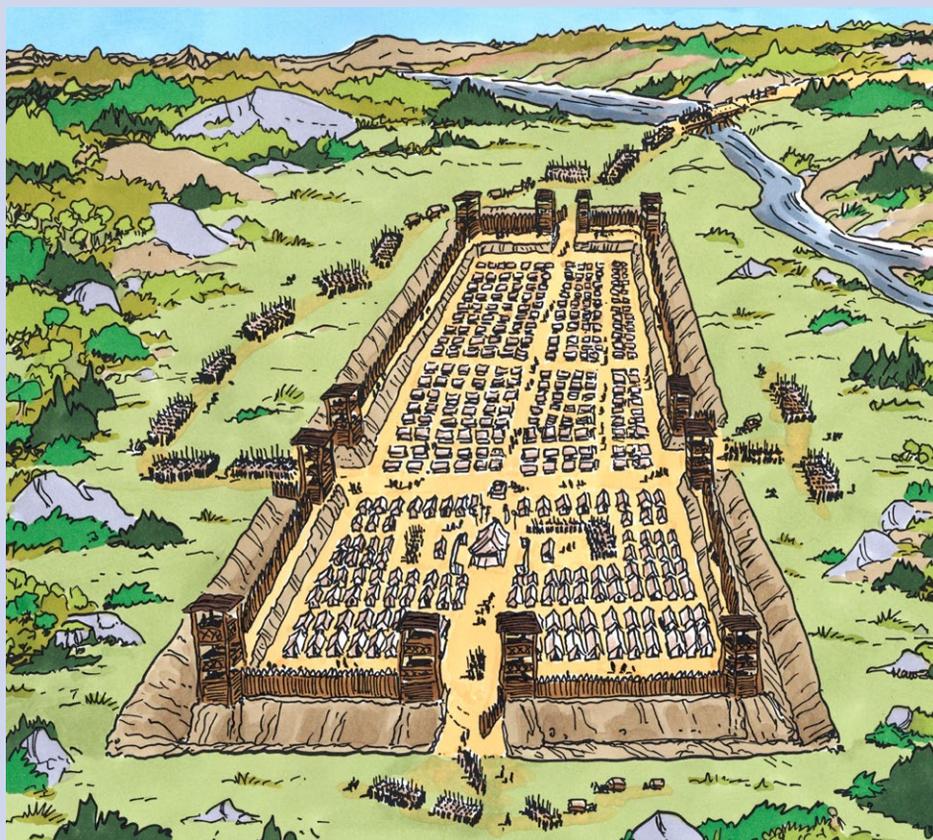
기원전 50년 12월에서 49년 1월 사이 루비콘 강을 건널 당시 그의 나이는 51세였다. 기원전 46년 네 번 연달아 승리를 거두고 로마 군주가 되었을 때 카이사르는 54세에서 55세였다. 그렇지만 그가 세계의 1인자로 군림한 건 고작 열두 달 뿐이었다. 56세가 되던 해 기원전 44년 카이사르는 암살당했다.

갈리아르 전쟁은 얼마나 지속되었나 ?



기원전 58년에서 51년까지 8년. 로마인들에게 이 전쟁은 로마력 696년 헬베티 족과의 전투에서부터 시작되어 703년 옥셀로두눔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이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해 겨울 군대는 갈리아 영토 내에 있던 그들의 요새에서 숙영했다.

요새는 높이 3미터, 넓이 4.5미터의 성벽으로 단 한 번, 기원전 54년 네르비 족의 공격을 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다. 당시 마침 등장한 카이사르 덕분에 적들을 성벽에서 몰아낼 수 있었다.



전투 당시 카이사르의 태도는 ?



전쟁이 끝나자 마자 기원전 52년의 봉기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카이사르는 신속한 심판을 내린다. 누가 베르생제토릭스의 편을 들었는가 ?

누가 카이사르에게 충성을 외쳤는가 ?

죽음의 징벌, 재산 몰수 또는 보상이 이어졌다. 반대파들은 숙청되었고 충성분자들은 금과 토지를 받았다. 카이사르는 갈리아르 총회를 열어 누군가의 왕관을 빼앗고 다른 누군가로 대체했다. 그리고 과두정치가 지정한 왕들을 임명했다. 또한 그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모든 권력을 마음대로 뒤집고 귀족 서열에 점점 더 많은 인질을 요구했다.



그는 약탈을 서슴지 않았고 신전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카이사르의 군대를 등에 업은 노예 상인들은 죄수들을 사들여 카이사르의 금고를 채웠다. 이렇게 50만에서 백만 명 정도의 갈리아 인들이 팔려갔다. 이어서 카이사르는 « 알프스 너머 지역 » 까지 병합하고 그 지역 갈리아 인들 중 특정 귀족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다. 시민권을 받은 갈리아 귀족들은 스스로를 « 황제 » 라고 지칭했다.

카이사르는 오랫동안 승리를 누렸을까 ?



전혀. 카이사르는 공화정의 음모로 폼페이우스 회랑에서 기원전 44년 3월 15일, 알레지아 전투 승리 8년 후, 그리고 옥셀로두눔 승리 7년 후 암살당한다. 당시 카이사르는 56살이었고 왕위에 오른 지 고작 12개월째였다. (기원전 45년 3월부터 44년 3월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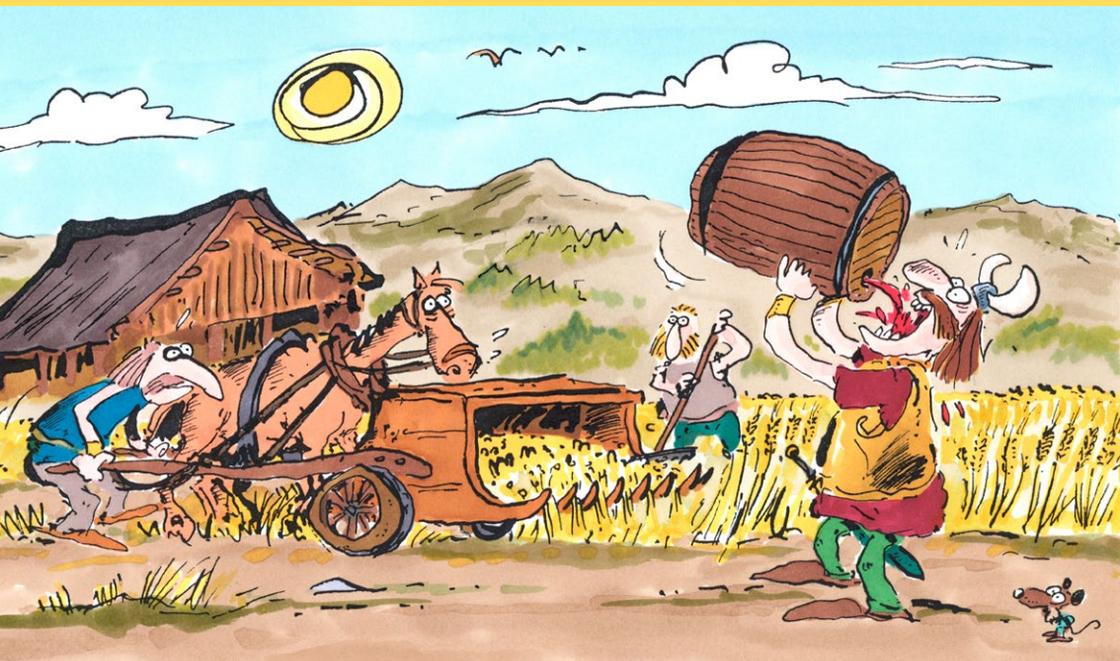
베르생제토릭스가 처형당한 지 18개월 만이었다. 한편 비브락트 요새에서 카이사르가 « 갈리아 전쟁기 » 를 쓸 때만 해도 7년 후 암살 당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이다.



켈트 족의 위대한 발명품은 ?

로마 저술가들은 갈리아 인들이 밀을 자르기 위해 발명한 놀라운 기계에 대해 묘사했다. 낫으로 밀을 베던 다른 민족들과 달리 갈리아 인들은 소가 끄는 바퀴 달린 차량을 고안해내었는데, 거기에 날카로운 이가 달린 판을 달아 이삭을 잘라 뒤에 달린 수레에 바로 넘길 수 있도록 했다. 최초의 탈곡기는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

나무 술통 역시 갈리아 인들의 발명품들 중 하나로 이것의 등장으로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술항아리 산업은 몰락을 맞았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 로마의 길 »은 갈리아 인들이 이미 닦아 놓은 길을 따라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로마인들은 이미 있던 포장 도로, 경계석, 그리고 안전을 위해 도로 규칙 등을 재정비했을 뿐이었다.





빅스(VIX)의 보물이란 ?



빅스 꽃병은 높이 1미터 64센티, 둘레 1미터 2센티, 무게 208.6킬로그램에 1100리터의 용량을 담을 수 있는 보물이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이 보물은 기원전 150년 경 전 코린토스 공방에서 만들어졌다. 손잡이에는 인상을 쓰고 헛바닥을 내미는 고르고노스가 조각되어 있다. 이 화병은 1953년 1월 6일 빅스에 있는 켈트 공주의 무덤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빅스의 보물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무덤에서는 꽃병 이외에 황금 왕관을 장식한 보석 등이 출토되었다. 기원전 550년에서 450년으로 추정되는 유적지의 발굴은 청동, 철, 진주, 병구, 브로치 등이 발굴되었다. 코트 도르 지방 샤티옹쉬르센에 있는 샤티옹 박물관에 가면 이 보물들을 만날 수 있다.

갈리아 전쟁이 끝난 후 갈리아 인들은 카이사르 군대에 합병되었을까 ?



갈리아 전쟁 중 카이사르가 편성하고 그 용맹성으로 무척 유명한 알루다에 (Alaudae) 보병대는 갈리아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은 곧 로마 시민권을 받기로 되어 있었다. 주바 코끼리들 앞에 겁에 질린 로마인들을 본 보병대는 코끼리에 맞서기 위한 특별 훈련을 받았다. 탑수스 전투 이후 다섯번째 보병대는 코끼리 그림을 상징으로 삼는다. 코끼리는 짐을 싣는 데는 탁월하지만 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조그마한 상처, 또는 기수의 죽음에 곧잘 패닉 상태에 빠졌고 통제 불능에 빠진 코끼리는 도리어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